

# 설 명절 추모 가정예배 순서

주후 2025. 1. 29(수) 아침

사회 | 담당자

묵	도	고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21:22-27	가	족	중	
추	모	의	말	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	회	자
찬	송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 606장)	다	함	께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중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께		

## 성경말씀 | 요한계시록 21:22-27

- 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 25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 추모의 말씀(Message) | 천국은 어떤 곳인가?

###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22-27)

성경에는 성도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천국에 대해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펀전은 그것이 성도들의 surprise(경이로움)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 두 장인 21장과 22장이 천국에 대한 약간의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21:22-27을 통해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여러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빛의 원천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천국에는 따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로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 전체가 그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힘, 위엄, 권세, 거룩하심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십니다.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 2. 천국은 인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존재하는 곳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흠모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도 왕 노릇하며 그런 좋은 선물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특별은총은 성경과 구원 같은 것들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은총은 자연,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것들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왕들이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선한 영광의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모차르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미처 즐기지 못한 것들을 거기서 즐기고 계실 것입니다.

## 3. 천국은 인간 세상의 속되고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만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이 들어 갈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죄 되고 악한 일체의 것들이 차단된 곳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그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는 용서 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마지막 축복,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의 가족들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 세상에 나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